

보충 질문 답변서

번호 :

(청소행정과)

질문의원	김복동 의원(재무건설위원, 종로5.6가동)
【질문】	
○ 생활쓰레기를 1개 통 단위로 수거할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는것은 뚜껑이 덮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시려는 노력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를 1개 통 단위별로 구분하여 수거 할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것은 뚜껑이 덮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으니 재차 통단위로 수거할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 임시회의시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구의 여전은 도심지에 위치한 관제로 1개 통단위로 중간거점 수거통을 설치할 마땅한 공간이 없으며,	
○또한 각통단위 또는 거점수거통을 설치할 경우 수거통주변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점포주로부터 중간거점 수거통으로 인한 무단투기 발생문제 또는 여름철 악취발생등으로 인하여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하는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현재도 음식물 거점수거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작업을 하는 실정이며	
○ 이러한 연유로 우리구 뿐만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1일300톤이상배출자)을 제외한 일반 상업지 및 주거지에서는 문전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통단위 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인근에 주민이 되도록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답변서

번호:

(총 무 과)

질문의원	김복동 의원(재무건설위원회 : 종로5·6가동)
【질 문】 ○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책정 자율권 확대에 대비한 데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우리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강구와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순환 전보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맡은 업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 전보 문제를 재차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서울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개정·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기준」에 의거하여 강남구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 자치구로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총액인건비제도”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자율에 의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구에서도 2007년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비하여 시범 운영중인 강남구의 각종 시스템과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부합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시스템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 직원 전보문제도 주택과 등 사업부서는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업무담당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주민서비스 행정공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인 인사제도를 강구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와 지도편달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1등 종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